

“슬프고 아픈 영화, 촬영 내 울면서 찍었다”

김기덕 감독의 ‘그물’

“분단 66년 남북, 영화 통해 보여주고자”

최근 김기덕(56) 감독의 시선은 이전과는 다른 곳을 향해 있다. 데뷔 이후 줄곧 인간 개인에 대한 깊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왔던 그는, 2013년 ‘뫼비우스’를 마친 뒤 우리 사회를 정조준한다. 물론 전작들 안에 사회에 대한 근심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그 강도의 차이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김 감독 스스로도 “내가 사는 세상이 안전해야 영화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의 이기가 일으키는 것들 이를 떠낸 전쟁 같은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야 인간도 자유로울 수 있다고 말한다.”

그의 스물 두 번째 영화 ‘그물’도 이런 말의 연장선상에 있다. 영화는 본격적으로 남북 문제를 다룬다. 김 감독이 각본을 쓰고 제작에도 참여한 ‘풍산개(2011)’와 ‘붉은 가옥(2013)’도 이 주제를 건드리고 있지만 ‘그물’은 우회하는 법이 없어 더 직접적이다.

최근 ‘그물’이 언론 시사회를 통해 국내에 첫 공개됐다. 김 감독은 시사회 후 열린 기자답회에 참석, “분단 66년째다. 남북이 서로에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이 영화를 통해 보여주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 문제를) 스스로 진단하고, 스스로 해결해보자는 애정을 담았다. 우리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 핵심은 우리 자신이다. 그런 문제 의식을 제기하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영화는 북한 어부 남철우(류승범)의 이야기다. 고기를 잡으러 나간 어느날 그는 그물이 보트 스크류에 걸려 이리저리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맞이한다. 얽힌 데 달린 격으로 모퉁이져 고장난다. 전채살이던 배를 버릴 수 없던 그는 남한까지 흘러 들어오게 된다.

‘그물’은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불타는 분단 상황이 어떻게 한 개인과 가족을 철저히 파괴해놓는지 공을 들여 묘사해 간다. 그저 가족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음 밖에 없는 그를 남과 북은 말 그대로 ‘조러플링’한다. 그들의 체제는 다르지만 개인에게 폭력적 존재라는 건 다르지 않고, 그렇게 서서히 남철우와 그의 아내, 딸은 지워져 간다.

김 감독은 “슬프고 아픈 영화다. 촬영 내 울면서 찍었다”고 했다.

그는 “내 영화가 늘 그랬듯이 어떤 사실을 자세히 전달하기보다는 큰 뜻에서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었다”며 “‘그물’이라는 제목도 그렇게 봐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그물이라는 제목의 의미에 대해, ‘단순히 말하자면 그물이 국가이고, 물고기가 개인이고 국민’이라고 설명했다. 김 감독은 “개인적인 분노라는 남북 관계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서서히



최근 서울 광진구 롯데시네마 건대점에서 열린 영화 ‘그물’ 시사회에서 김기덕 감독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하게 됐고, 감독이 돼서는 (남북관계에 대한) 감정이 변했다”고 했다. “이 영화가 아버지로부터 비롯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나에게 중요한 문제다. 이제는 남북이 두 개의 국가가 되고 있지 않은가. 이 땅이 열강들의 대리전인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도 있다. 청소년들도 이 영화를 보고 많은 생각을 하기를 바란다.” ‘그물’은 김 감독 영화로는 드물게 15세 관람가 등급을 받았다.

김 감독은 “이데올로기가 개인에게 던져졌을 때, 개인이 이데올로기의 무대에 서 있는 게 얼마나 가혹한 것인지 보여주고 싶었다. 가장 많은 욕심을 낸 장면이고, 상황이 여의치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 찍었다. 이 영화에서 가장 좋아하고 동시에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이라고 설명했다. ‘그물’에는 류승범·김영민·이원근·최귀화 등이 출연했다. 오는 6일 개봉한다. /김민근기자

‘열심히 일한 당신, 쉬어라’

‘공감작렬’ 가요계 신곡 2곡 달사벳 ‘금토일’·박효신 ‘숨’

듣기 좋은 꽃 노래도 한 두 번이다. 대중가요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사랑 타령에 지겨워 때도 됐다. 더욱이 이별한 후거나, 사랑조차 열정도 못하고 있다면... 이럴때 그냥 신나거나 편안한 노래가 그립다. 사랑노래가 지겹다면, 마침 우리의 일상에 침투한 소재로 ‘공감 작렬’하는 신곡이 가요판을 달구고 있다. ‘볼금’과 ‘볼보’를 책임질 화끈한 ‘달사벳’과 편안하고 차분한 휴일을 만들어줄 박효신의 노래, 강추한다.

‘열심히 일한 당신, 쉬어라...달사벳 ‘금토일’

사랑과 이별을 소재로 전형적인 걸 그룹의 노선을 타던 그룹 ‘달사벳’이 좀 더 현실적이고 공감 가는 소재를 들고 지난 달 29일 컴백했다. 신곡 ‘금토일’은 최선을 다해 ‘월화수목’을 보낸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금토일’을 기다리자는 메시지를 담았다. 좀 더 확장하면

좋은 날이 올 거라는 희망이다. 달사벳과 인기 작곡가 신사동호랭이가 두 번째로 힘을 맞춘 결과물이다. 래치 드림(베이스 트로피컬 트랩 등 다양한 장르를 섞은 신나는 댄스곡이다. 멤버들의 넘치는 에너지에서 받는 힘으로 한 주의 마지막을 화끈하게 장식하게 할 노래다.

‘열심히 일한 당신, 쉬어라...박효신 ‘숨’

평일에 일하고, ‘볼금’·‘볼보’까지 보냈다면 일요일 하루는 다음 주를 준비하며 차분하게 휴식을 취할 시간이다. 배경 음악은 지난 달 29일 발표한 박효신의 신곡 ‘숨’이 좋겠다. 다음 달 발매할 정규 7집 ‘아이 엠 어 드러머(I Am A Dreamer)’의 선 공개 곡이다.

가사는 작사가 김이나와 박효신이 함께 썼다. 힘들고 지친 일상에 희망을 갖는 것도 사치라고 느끼는 사람들을 위한 노래다. 누구나 꿈과 희망을 가질 자격이



그룹 ‘달사벳’이 좀 더 현실적이고 공감 가는 소재를 들고 지난 달 29일 컴백했다. 있고 그 꿈과 희망이 삶을 꾸리는 원동력이 될 거라는 위로의 메시지를 전한다. 웅장한 스트링 사운드와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로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희망을 다짐하게 할 노래다. /김민근기자

FIFA U-20 월드컵 상품화사업권자 선정 공개 입찰

2017년 FIFA U-20 월드컵조직위원회(위원장 정몽규)가 내년 5월 국내에서 열리는 FIFA U-20 월드컵 2017의 상품화사업권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실시한다고 지난 달 30일 밝혔다.

U-20 월드컵이 국내에서 열리는 것은 처음인 상황에서 조직위는 제안서 접수를 통해 대회 상품화사업 운영과 상품 개발, 생산, 판매를 수행할 업체를 선정한다.

선정된 상품화사업권자는 대회 관련 상품 개발 판매를 진행하고 대회 기간 머천다이즈 매장 기획 및 운영 관리, 후원사 결제 시스템 구축 등의 업무를 맡는다.

사업권자 선정은 공개경쟁입찰 방식이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축구협회 홈페이지(www.kfa.or.kr) 또는 나라장터(www.g2h.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안서는 오는 13일까지 이메일(mokisj@u20korea.com)을 통해 접수한다. /김민근기자

조진웅 ‘대장 김창수’ 출연 확정

배우 조진웅(40)이 영화 ‘대장 김창수’(감독 이원태) 출연을 확정했다고 소속사 시몬엔터테인먼트가 지난 달 30일 밝혔다.

이번 작품은 일본인을 살해한 죄로 투옥된 ‘김창수’가 훗날 독립군의 영웅 김구로 거듭나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조진웅은 주인공 ‘김창수’를 맡는다. 앞서 송승환이 김창수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인천 감독소장 ‘김형식’을 맡아 필모그래피 최초로 악역에 도전하고, 김창수의 조력자 ‘마상구’ 역은 최근 하수리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선보인 정민석이 맡기로 했다.

연출은 ‘조선미술사’를 쓴 이원태 감독이 맡는다. 영화는 캐스팅을 마무리하고 올해 안에 본격 촬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민근기자



검찰, 허위증언 거짓자언 전 매니저 벌금 300만원

검찰이 배우 이미숙(57·여)씨의 전속계약 위반 소송에서 허위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장지연(1980~2009)씨의 전 매니저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공판법원 형사16단독 이흥주 판사 심리로 지난 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유모(3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유씨는 2012년 배우 이미숙의 전속계약 위반 분쟁 승소를 돕기 위해 허위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는 당시 이미숙이 ‘더퀸텐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 자신이 운영하는 ‘호야스퍼테인먼트’로 옮기면서 제기된 위약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미숙은 에이전트 계약 관계로 전속계약 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더퀸텐엔터테인먼트 직원인 백모씨는 유씨가 이미숙과 전속계약을 한 사실이 있는데도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했으며 2014년에 고발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유씨의 요청에 의해 30분간 피고인 신문이 이뤄졌다.

검찰 측이 증거로 제시한 전속계약서에 관해서는 “미리만 들어 둔 양식일 뿐이다. 만약 전속계약서가 존재했다면 장지연 사건으로 검·경의 대대적 압수수색을 받을 때 나왔을 것”이라며 반박했다.

유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유씨는 이른바 장지연 사건을 폭로한 후 위증 사건을 포함해 총 9건(민사 6건·형사 3건)의 민·형사상 소송을 당했다. /뉴시스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THE GREAT CHANGE 태권도원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